

America Counts

‘긱 경제(Gig Economy)’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센서스 인구조사와 함께하십시오.

인구조사국은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비하여 50 만 명의 시간제 및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America Counts 직원 - 2019 년 8 월 5 일

승차 공유 서비스업부터 수제 공예품 인터넷 판매까지, 미국 국민들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위 ‘긱(Gig)’이라 불리는 이런 부업은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새로운 기회와 기업이 더 많은 시간제, 계약직 인력을 고용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인구조사국은 내년 가장 큰 규모의 긱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인구조사국이 내년 2020 년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50 만 개 이상의 임시직과 시간제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집을 방문하는 가구정보 수집원 및 일반 업무와 함께 집 주소 확인을 담당하는 사무 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시간당 \$13 에서 \$30 까지 지급합니다.

최첨단 센서스 인구 조사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가구정보 수집원, 즉 인구 조사원의 업무수행 방식은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매뉴얼, 지도가 든 커다란 가방과 서류 상자를 들고 다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인구 조사원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보조합니다.

인구조사국이 개발한 지도 소프트웨어는 집에 있는 응답자의 집을 방문하는 데 최적의 시간과 도착 경로를 안내할 것입니다.

버튼 리스트 인구조사국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국장은 “예전엔 모든 것을 종이 서류에 처리했다”고 회고하며, “서류 상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훌륭한 부업 또는 시간제 직 일자리

사상 최초로,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 관련 채용은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프 벨러 인구조사국 뉴욕 지역 본부장은 “이는 훌륭한 부업이 될 것이며 학생, 버스 운전기사, 교사 및 기타 직종 사람들에게 적격”이라고 추천하며, “평일에는 기존 직장에서 주당 40 시간 근무 후, 주말에 센서스 인구조사 일을 한다면 둘 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러 본부장은 근무 외 시간에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 종사자 또한 훌륭한 채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채용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벨러 본부장은 전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채용 일정

2020 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공식 센서스 인구조사 기준일인 2020 년 4 월 1 일 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집계합니다. 해당 집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와 나이를 포함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인구조사 기준일 당시 거주 인원수뿐만 아니라 거주 장소도 함께 조사합니다.

인구조사국은 전국에 걸쳐 지도와 주소 목록을 업데이트하고자, 8 월부터 전국 주소 상세 조사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약 5만 명의 임시 인구 조사원이 6주 동안 전국적으로 5천만 개 이상의 주소를 확인하여 신규 거주지(또는 주소)가 추가되었는지 파악합니다. 인구조사국은 2020년 3월 안으로 전국의 모든 주소지에서 센서스 인구조사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초, 인구조사국은 인터넷이나, 전화, 종이 설문지로 미처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주자들이 설문지 작성하는 것을 보조하도록 집에 개별 방문할 가구정보 수집원을 채용합니다.

이러한 개별 방문 업무는 보통 저녁 시간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낮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지역 본부 및 사무소 내근직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채용은 모두 서면 지원과 방문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채용에 선발된 경우 지원자는 근무 시작 전, 지문 제공과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십니까? 센서스 인구조사는 바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인구조사국은 모든 필요 직종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티모시 올슨 인구조사국 현장 운영 담당 부서장은 말합니다.

인구조사국은 비영어권 언어 사용자와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 거주자를 채용하여, “집계 대상인 이웃들이 가구정보 수집원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벨러 본부장은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구정보 수집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겠지만, 10년 후 같은 사람들이 인구 조사원으로 일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며, “정말 놀라운 경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